

우리의 모든 날이 지나가며...

본문: 시편 90:9-12

“시간의 가치”에 관련된 현실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1 년의 가치를 알려면, 재수하면서 대학 입시에 또 낙방한 학생에게 물어보라.

1 개월의 가치를 알려면, 아이를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낳은 조산아 엄마에게 물어보라.

1 주일의 가치를 알려면, 일주일마다 한 번 발간하는 주간지 편집장에게 물어보라.

하루의 가치를 알려면, 6 명의 자녀를 두고 노동현장에 뛰어든 일용직 근로자에게 물어보라.

1 시간의 가치를 알려면, 서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연인에게 물어보라.

1 분의 가치를 알려면, 비행기를 눈 앞에서 방금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

1 초의 가치를 알려면, 올림픽 육상 은메달리스트에게 물어보라.”

이처럼 인생에게는 많은 시간은 물론 아주 작은 시간도 무척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지각하지 못할 때가 무척 많습니다. 눈앞의 일에만 너무 바빠 시간의 빠른 움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치 백만년이나 살 것처럼 시간을 소비하고 낭비합니다.

그러나 시계의 짹짹 시간 가는 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흘러 갑니다. 본문 9-10 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pass away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한숨) a moan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fly away

나아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로 우리는 영락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강하게) 하셨사오니” (90:3). Return to dust O sons of men!!!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심장이 덜컥 내려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무와 절망만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지난 31 일이 2023 년 마지막 날임을 명확히 알고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려고 준비했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간의 끝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인생을 더욱 지혜롭고 알차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2 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to number our days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간구)

그러면 우리는 모든 날이 일순간에 지나가는 인생에 대한 무상함과 절박함을 통해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될까요?

1. 현재를 살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과거나 미래와 관계된 것을 다 뺀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을까요? 틀림없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제의 쓰라린 후회와 즐거운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불안한 염려와 간절한 기대라는 두갈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란 시간이 과연 존재하나요?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존재하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미래가 지나갈 때 현재가 되는 것이고, 현재가 지나가면 과거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현재의 실체 속에 들어가 현재라는 시간을 가질까요? 우리가 진실로 존재하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현재에 주목하는 때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마음을 열고 주위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무엇을 주든 그대로 받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들이십시오.

솔로몬의 결론: 해아래 모든 것이 헛됩니다 (전 1:2-3).

전도서의 첫 시작인 1 장 2 절의 단 한절에서 “헛되다”가 무려 5 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결론도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말합니다 (2:11). 인생허무, 인생무상

그러나, 인생을 살아 가는데 오직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만은 의미가 있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 (전 3:22).

“18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19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20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5:18-20).

*** “이에 내가 희락을 enjoyment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 joy 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8:15).

우리 모두 현재를 즐기려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는 육체의 즐거움(쾌락)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 마음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2.마지막으로 우리 날의 끝이 신속히 올 것을 인정하게 되면, 죽음을 내쫓게 됨은 물론 나아가 하나님과 영원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죽음이란 무서운 현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애써 부인하고 도망치려 해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 단순히 미래의 일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현재의 실체이며 지금의 일부입니다.

사례) 다윗의 고백: 사울왕이 자신을 집요하게 죽이려 하기에 다윗은 친구 요나단에게 고백합니다.

“...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걸음 뿐이니라” (삼상 20:3). (... There is only a step between me and death)

이 후,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피신한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영원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 63:1).

이 외에도 다윗의 시편 많은 곳에서 영원을 갈구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셀라)” (61:4).

“5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
6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62:5-6).

그렇습니다. 단순한 미래의 앞날(tomorrow or future)은 우리를 결코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의 닳을 훨씬 멀리, 아득한 영원(eternity) 속으로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의 끝을 인정하며 우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실로 현재를 살면서 영생을 향해 가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말의 시간이 있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세상 너머를 향하여 눈을 들게 됩니다. 한시적 세상의 지평을 넘어 광대무변한 영원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시한부 인생을 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인생무상을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무능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유입니다.

남은 생을 의미있게 축복받으며 살아가곤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자신과 죽음의 사이는 단지 한걸음 뿐임을 인정함으로써, 죽음을 넘어 영원을 갈망하시며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쓴 살 같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지각은 우리로 현재를 살게 합니다.

또한, 앞날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기대를 하나님과 영원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인생의 모든 날은 참으로 짧습니다. 쓴살같이 날아가는 이 시간을 지각하십시오! 우리 날의 마지막을 인정하는 지혜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그리하여 지금 주어진 현재를 즐겁게 알차게 사십시오. 나아가 하나님과 영원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삶을 사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의빛교회 민경수목사드림-